

◆머느리권씨 열전 25-1

송려집 저자 배상협(裵相協, 흥해 배씨 21世)의 부인 권씨 (검교공파 27世, 태인계 命岳의 딸)

오늘날 진정한 선비정신이 사라져 혼란의 시대를 맞은 것처럼, 일찍이 동방의 스승 공자는 ‘논어’에서 “남을 위해 배우는 학문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라고 경계하고 위인지학(爲人之學, 인격 수양 자신을 위한 학문)을 역설했다. 그 반대는 위인지학(爲人之學, 고시합격 남에게 보이는 학문)이며 이것이 빼놓아진 엘리트의 오만과 부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니 가히 교훈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봉화 녹동리사(마을 회관 겸 서당)에서 스승 배상열과 배상협은 고통준론을 나누었고 권씨부인도 여기를 자주 낚을 것이다.

사진 권오철

조선시대 안동부 봉화현 녹동에 비운의 천재 배상열(1759-1789, 향년 30세)선생에 대한 문집을 보던 중 발견한 그의 제자이자 친척 동생 배상협(1766-1809, 향년 43세)의 문집 ‘송려집(松廬集)’을 번역하다가 처음으로 소개되는 그의 사상에 삼가 경의를 표하던 중 그의 부인이 권씨(검교공파 27世)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몇 가지 기사를 발견하고 그녀가 권문의 딸로 기여한 바를 소개하기로 하였다.

“진정한 학문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송려집』은 조선 후기 학자 배상협의 저술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위기지학은 외적인 성취나 타인의 인정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내면을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송려집』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명예를 구하는 학문은 참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학문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배상협은 『송려집』에서 경전을 깊이 읽고 성찰하며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위기지학의 핵심 방법론과 일치한다. 위인지학(爲人之學)이 표면적 지식 습득에 머무는 반면, 위기지학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중시한다. 『송려집』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 마음을 닦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사회는 성적, 경력, SNS 과시 등 외적 성취를 중시하는 위인지학의(人은 ‘남’이라는 뜻)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송려집』이 전하는 위기지학의



송려집, 소나무밀 오두막집, 배상협의 문집, 처음으로 만든 번역본 사진 권오철

정신은 진정한 배움이 자기 성찰과 실천에서 비롯됨을 상기시킨다. 학문이 단순히 취업이나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송려집』은 조선 유학의 전통 속에서 위기지학을 실천한 사례로, 학문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진정한 배움은 외부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현대인들도 『송려집』의 정신을 되새기며, 학문과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송려공(松廬公) 배상협(裵相協, 1769-1806)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가문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아 성리학의 심오한 이치를 탐구한 인물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뛰어나 12세에 『소학』을 깊이 연구하며 학문적 재능을 드러냈고, 괴담(槐潭) 배상열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경전(經義)의 참 뜻을 탐구하는 데 힘썼다. 특히 『용학속찬요』를 저술하여 이기원론(理氣一原論) 등 주자학의 난해한 논제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며 학문적 깊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생은 44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학문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그간 저술한 글들도 대부분 유실되어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였다. 다만 남은 글들은 경전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을 담고 있어, 되새김수록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선생의 학문은 화려한 문장보다 본질적 의미를 궁구하는 실천적 유학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며, 조선 후기 피상적인 학풍 속에서도 경전의 참된 가치를 지키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오랜 시간 잊혀졌으나, 1920년 가을, 후손인 배동진(裵東進)과 학자 김건영(金建永)의 노력으로 유집(遺集)이 발굴되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조선 유학의 정신을 지키려는 가문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선생의 유집은 후학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1937년에는 한 젊은 학자가 “조선에도 이런 학자가 있었다”는 감탄을 하며 그 가치를 재발견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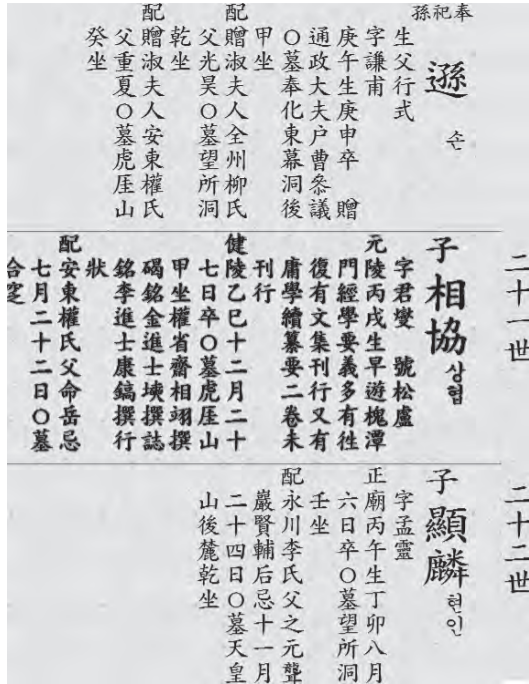
송려공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학문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고 있다. 선생은 학문적 완성보다 진리를 향한 열정 자체를 중시했으며,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경전 연구와 실천적 학문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후손들은 선생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 뜻을 기리며, 비록 조각난 유고라도 그것을 모아 후대에 전함으로써 선생의 학문적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길 소망한다.

“세상은 그를 잊었으나, 이 책은 백년을 잡아내었다.” 『송려공유집』 서문 중에 나오는 말이고, “이 글들은 조각난 거울 같아서,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비치지 못하지만, 모으면 천 개의 태양을 비출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이 글을 발견한 사람의 말이다.

배상협(裵相協)과 그 부인 권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항목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인은 안동 권씨로 권명약의 딸이며, 배상협과의 사이에서 2남 3녀를 낳았다. 계모는 역시 안동 권씨로 권중하의 딸이며, 가정 내 유교적 교육 풍토 조성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

배상협은 전주 유씨(생모)와 안동 권씨(계모)의 혼맥 구조 속에서 성장하였다. 본처 권씨를 통해 두 가문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기고



명 배상협(裵相協), 자 근섬(君璽), 호 송루(松廬)출생: 원릉(英祿42년) 병술년(1766년)생. 일찍이 괴담(槐潭)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경학(經學)의 요의(要義)를 깊이 연구하고 학문적 교류가 많았음.저술: 문집이 간행되었음. 또 『용학속찬요(用學續纂要)』, 2권을 저술하였으나 미간행.출년: 순조9년 기사년(1809년) 12월 27일 졸. 묘소: 호애산(虎崖山) 감적(甲宅, 동북향).묘갈명(碣銘): 생재(省齋) 권상익(相續) 찬(撰). 지명(誌銘): 김진사(進士) 상(瑒) 찬. 행장(行狀): 이진사(進士) 강호(康鎬) 찬.배우자: 안동 권씨(安東權氏), 명약(命岳)의 딸, 기일(忌日) 음력 7월 22일. 합장(合葬).

그와 권씨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 학문과 가문의 계승을 담당하였고, 세 딸은 각각 영남 사족 가문 출신 이학소와 관료 가문 출신 김시건과 혼인함으로써 가문의 사회적 위상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가문은 고려 말 흥건적 토벌의 공으로 흥해군에 봉해진 시조 배전(裵詮)에서 시작된다. 중시조인 배삼근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고조 배인길은 순절한 의병으로, 쌍절문(雙節閫)이 건립될 정도로 충절을 인정받았다.

직계로는 배상협에서 시작하여 배현린을 거쳐 배동진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가학(家學)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는 “불어중성교(不語中成)”라는 교육 철학을 실천하였다. 이는 말을 삼가고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교화 방식이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권씨 부인의 내조와 결합하여 유교적 가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 그것이 곧 교육’이라는 것이다.

『소학』은 필수 교육 교재로, 자녀들에게 3년간의 집중 수련을 시켰으며, 이를 통해 유교적 인성 교육을 실현하였다.

배상협과 권씨 부인의 혼인은 단순한 부부 관계를 넘어서 가문 유지, 학문 계승, 사회적 연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축을 형성하였다. 권씨 부인은 유교 가정 교육의 중심을 조용히 지탱한 인물로 평가된다.

배상협(裵相協, 1766-1809)의 가족 상황은 부친 증 사복정(증5품) 배순(裵璿), 생모 증 호조참의(정3품) 전주 유씨(광호의 딸), 계모 증 정부인(정2품) 안동 권씨(권중하의 딸)

배우자: 안동 권씨(권명약의 딸) - 아들 현린·현봉, 딸 3명(이학소·김시건·서육렬에게 출가)

후손: 현린 → 찬주·구주·무주·동주 / 현봉 → 달주 아 같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영수증(현금영수증)과 계약서등에 대한 세무상식 ②



권오형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II. 현금영수증 제도

1. 입법취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목적)

현금거래는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등과 달리 거래기록이 남지 않아 탈세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① 소득 탈루 방지 및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 ②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소비자 구매기록 보장
- ③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 부여 (소득공제/세액공제)
- ④ 자영업자 과세자료 확보 및 과세 형평성 제고

2. 가입 대상자 및 가입기한

■ 가맹점(사업자) 의무 가입 대상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 또는 법인세법상 법인
- 특히 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21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음:

구분	가입 의무 시점	대상
소비자 상대업종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매출 2천만 원 이상	국세청 고시 업종 (예: 병원, 음식점, 학원 등)
일반 자영업자	자율가입 가능하나, 소비자 요구 시 발급 의무 있음	모든 업종 가능

- 신규 개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가능.

3. 발급 의무

-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 거래금액 3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발급 의무
- 거래금액이 3만 원 미만이라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함
- ② 발급 수단
- 소비자가 휴대전화,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단말기나 POS를 통해 발급

4. 위반 시 가산세

- ①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 예: 100만 원 현금 거래 후 발급 누락 → 20만 원 가산세
 - ② 미제출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했지만 국세청에 자료 미제출 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③ 거짓 발급 시
 -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허위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 부과

5. 소비자의 혜택

항목	내용
소득공제	연 1월~12월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중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자 중심)
조세포인트 및 세금 포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부정거래 신고 제도 포함)
국세청 자동 자료 제공	현금영수증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6. 기타 참고사항

- 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 이용
 -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실제 위반으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 →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승인
 - 등록 후 단말기/POS 연동 또는 간편 발급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 ③ 관련 세법 조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및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121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다음호에 계속)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것이다.

선교사들이 들에서 농사일을 하는 농부를 만나서 말하기를 “할아버지 여호와를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십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농부에게 여호와를 믿으라고 전도했다.

그러던 이 농부의 대담이 “예게, 이 사람이, 천벌을 받을 소리하지 말게. 그런 것은 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무슨 경질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먼.”

이번에는 밭에 매고 있는 아낙네에게 선교사가 말했다. “아주머니, 여호와를 믿으세요. 가난한 삶이 부자가 되고, 아픈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믿으세요!” 아낙네는 소스라치게 하는 말, “예구머니, 무슨 경질 소리를... 우리 하늘님(하나님)이 들으시겠소. 세상만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호와를 믿으라니.”

해서 선교사들은 도저히 전도할 방법이 없었다. 소속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 의논을 했다. 한 선교사

섯던 한글학자 주시경(1876. 11. 7-1914. 7. 27)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1895년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한글판으로 제작했던 게일(J. S. Gale) 선교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의 신은 크신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불리는데 한 크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다”(Gale, Korean Ideas of God, 1900, 573p). 우리나라의 한글 운동의 아버지 주시경 선생의 말씀이다.

“한국인들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숭배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포교하는 일은 아주 쉬워질 것이다”(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918, 125p)

아! 한민족이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알 때도 되었지 않겠는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우리의 얼을 찾자! 무엇이 우리의 잠재의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깨달아서 이제는 혼돈된 삶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보다 주체적인 삶, 더 높은 민족 얼을 계승 발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질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한민족의 얼을 재창조 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얼 속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신다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 섬겼던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교리도, 어떤 집단적인 조직도 만들 필요가 없는, 더구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만들어 낸 수많은 헌금과 시주는 더

더욱 필요 없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디는 말이다.

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가져다가 바치면 복을 주고, 영접을 안 하고 바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했던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고, 언제나 자연을 경의하며, 생명 그 자체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여 마음으로 기도에 바르고 정의로운 생각을 넣어주는 그 하나님을 이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내 마음이요, 일상의 나아가야 바른 길(道)이며, 늘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다.

이 위대한 한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하나의 진리)이시다. (다음호에 계속)

